

보도자료



배포일	2017. 6. 27.(수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02-880-5054)
담당부서	국제협력본부	문의	국제협력본부(02-880-5085)

서울대 성낙인 총장, 미국 하버드대 방문하여 '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개혁' 주제로 강연

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2017년 6월 27일(화, 이하 한국시간) 미국 하버드대를 방문하여 하버드대, MIT 등 보스턴 지역 유학생과 교포 학생 및 재미동포들을 초청하여 '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개혁'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. 강연에서 성 총장은 “한국은 동시대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유일무이한 나라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” 고 강조하면서 “이제는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 완수를 위해 넓은 인식과 이념의 장벽을 걷어내고 민주시민의 덕성 함양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” 고 역설했다.

민주시민의 생활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성 총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 개정의 방향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하기 위한 명시적 표현, 21세기 정보화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위협받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,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설정 등 1987년 헌법에 내재된 흠결의 보정 등을 제시하였다.

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정·부 대통령제(러닝메이트제와 중임제)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, 지난 70년 헌법사에 실시되어온 국무총리제의 폐지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므로 급진적인

개혁보다는 점진적인 접근을 주문하였다. 아울러 성 총장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 선진국 제도의 과잉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왜곡현상이 개헌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 이를 위해 성 총장은 서울대가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 같은 인재 못지않게 국화와 같이 늦게 피지만 오상지절(傲霜之節)의 기개를 지닌 인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.

이에 앞서 6월 25일(일) 성 총장은 보스턴 지역에서 열린 서울대 미주총동창회 제26회 평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였다. 이어 26(월)~27일(화)에는 라파엘 리프(L. Rafael Reif) MIT 총장, 주디스 싱어(Judith Singer) 하버드대학 부총장 등과 각각 면담하고 서울대-하버드-MIT 간 단기하계강좌의 설치 등 구체적인 학생 및 연구 교류방안을 논의하였다.

이번 방문과 강연에는 이효원 서울대 발전기금 상임이사(법학전문대학원 교수)와 구민교 국제협력본부 부분부장(행정대학원 교수)이 동행 참석하였다.